

가구주의 취업형태와 빈곤의 구조

이상호 · 최효미*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6차년도(1998-2003년) 조사에 계속응답한 2,671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의 규모 및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1998년에 18.2%로 나타났던 상대빈곤율은 2002년 20.1%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구주의 취업형태 및 가구내 취업자 수에 따라서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가 미취업자이면서 가구내 취업자가 없는 무직자 가구의 64.3%(차상위계층을 포함할 경우 72.7%)가 빈곤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998-2002년 사이에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 빈곤상태에 한번 빠지면 그 상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취업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체 분석대상가구 중 1998-2002년 기간 내 빈곤상태에 있었던, 이른바 만성빈곤 가구도 6.6%(차상위 계층을 포함할 경우 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다 현실화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을 제정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오히려 소득불평등 및 빈곤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가구를 비롯

한 차상위 계층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빈곤의 규모 자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넘어서 빈곤으로의 진입과 빈곤에서의 탈출과 같은 동태적 특성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겪게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무엇보다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응답자들은 소득에 대하여 대

* 한국노동연구원 패널팀 연구원

답하기를 기피하므로 정확한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그러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규모 및 특성들을 다루고자 한다. 1998년에 1차조사 가 시작된 본 조사는 동일한 가구 및 이에 속한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반복조사하는 국내유일의 가구패널자료이다. 따라서, 기존의 빈곤연구에 주로 사용되던 『도시가계조사』나 『가구소비실태조사』 등의 자료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패널자료의 이용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인적 특성 및 경제활동 정보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동일한 가구의 소득을 매년 반복하여 재조사하기 때문에 빈곤의 진입과 탈출 등 빈곤가구의 동태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게 되었다.

패널자료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표본은 한국노동패널 1-6차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2,671개 가구로 제한하였다. 이는 동태적 분석의 일관성 및 편의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상당한 표본 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표본 누락이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빈곤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표본 누락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게 될 빈곤이란 가구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에 속하는 계층, 즉 상대빈곤율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상대빈곤율과의 비교를 위해서 <표 1>의 경우 절대빈곤율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70%에 속하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분석마다 이를 포함하였다.

빈곤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소득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가구총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을 사용하였으며, 가구규모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가구원수로 통제하였다¹⁾.

2. 빈곤율의 추이

빈곤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에 미달할 때를 일컫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궁핍’(=절대적 빈곤)이 감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상대적 빈곤)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궁핍 그 자체를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분배를 보다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두 가지 접근방법 중 하나가 선택될 수 있다.

<표 1>은 이상에서 언급한 빈곤의 개념들을 토대로 측정가능한 빈곤개념을 설정하여 1998-2002년 기간동안의 빈곤율(=빈곤가구수/전체가구수*100)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절대빈곤율²⁾은 1998년 25.4%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16.7%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차상위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1998년 8.9%에서 2002년에는 4.7%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상대빈곤율은 이 기간동안 오히려 증가한

1) 빈곤율의 계산과 관련된 논의는 유경준 외,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KDI를 참조할 것.

2)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 수별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를 빈곤선 이하의 가구로 정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절대빈곤율 계산에서의 차상위계층이란 빈곤선의 120%의 소득에 해당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표 1〉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단위 : 가구,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절대빈곤율	25.4	22.6	22.6	16.5	16.7
절대차상위층비중	8.9	6.9	7.0	5.6	4.7
상대빈곤율	18.2	18.5	19.8	19.8	20.1
상대차상위층비중	11.9	13.0	11.5	11.9	9.2

〈표 2〉 가구주의 취업형태 및 가구내 취업자 수별 상대빈곤율 : 2002년

(단위 : %)

		가구내 취업자 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가구주의 취업형태	임금	-	12.0 (11.0)	5.1 (6.3)	2.9 (2.9)
	비임금	-	21.9 (5.8)	13.6 (13.6)	3.9 (5.5)
	미취업자	64.3 (8.4)	29.1 (12.2)	9.1 (12.1)	- (14.3)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차상위 계층의 비중임.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8년 당시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율보다 7.2%p가 낮은 18.2%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 이르러 20.1%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상대적 차상위계층의 비중도 이 기간동안 소폭(2.7%p)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2002년도 기준으로 절대적 차상위계층보다 약 두 배가량 높은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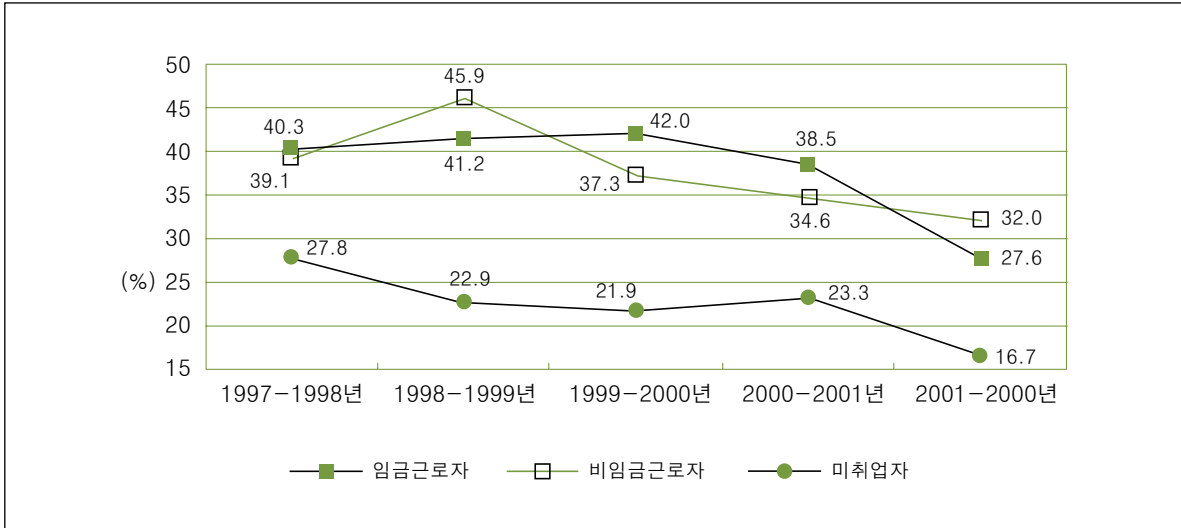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등 사회안전망의 개편으로 기초생계비수준의 소득도 얻지 못하는 이른바 극빈층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소득계층간의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현실의 빈곤문제에 있어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더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상대빈곤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구주의 취업형태 및 가구내 취업자 수에 따른 상대빈곤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가구주가 미취업자이면서 가구내 취업자가 1명도 없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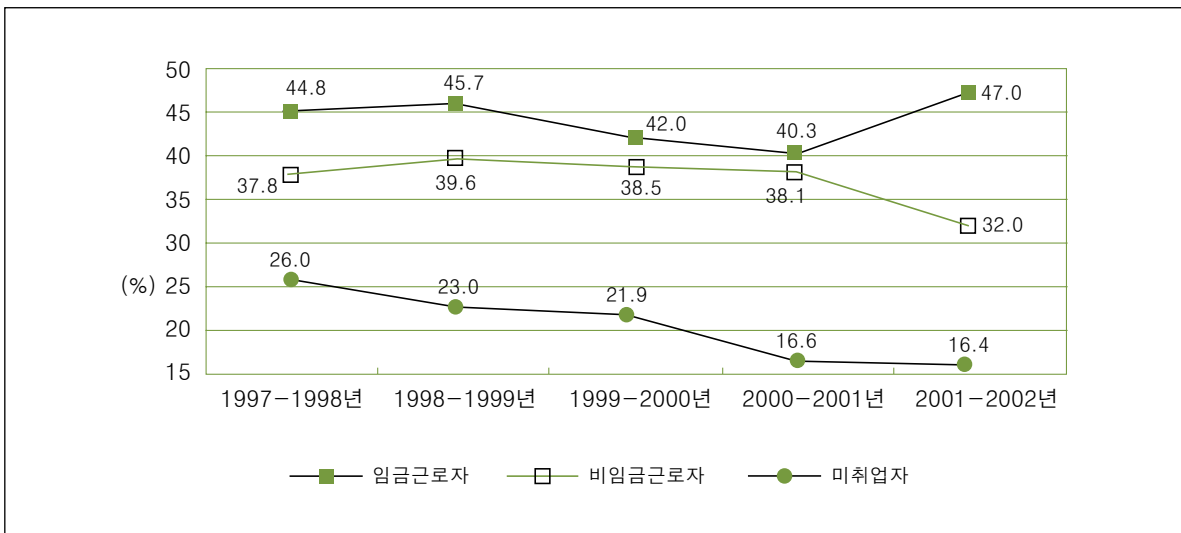
구의 64.3%가 빈곤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가 미취업자일 경우, 가구원 중 1명의 취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29.1%(차상위계층을 포함한 경우에는 41.3%)나 빈곤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 중에 취업자가 없더라도 12%만이 빈곤가구에 속하며, 가구내 취업자 수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9%만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비임금근로일 때의 빈곤율을 임금근로인 경우와 비교해보면, 가구 중 취업자가 1명인 경우에는 1.8배, 취업자가 2명인 경우에는 2.7배, 취업자가 3명인 경우에는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빈곤상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구구성원의 취업여부와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임금근로일 경우보다는 비임금근로인 경우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빈곤진입률



[그림 1-2]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빈곤탈출률



주: 1) 빈곤가구 = 중위소득의 70%이하(차상위계층포함)
 2) 빈곤진입률 =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진입한 가구 수/빈곤가구수(t)*100
 3) 빈곤탈출률 =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탈출한 가구 수/빈곤가구수(t-1)*100

3.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

가구의 취업형태는 단지 한 시점에서의 빈곤여부 뿐만이 아니라,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도 상이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이웃한 2개년

도 기간동안의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을 고용형태 별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빈곤진입률은 이전년도(t-1기)에 빈곤가구가 아니었으나, 다음연도(t기)에 빈곤가구로 진입한 가구 수를 그 해(t기)의 빈곤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빈곤탈출률은 이전년도(t-1기)에 빈곤상태에 있다가 다음연도(t기)에 빈곤에서 탈출한 가구의 수를 이전년도(t-1기)의 빈곤가구 수로 나눈 것이다. 이때 빈곤가구나 함은 상대적 빈곤에 처한 가구로 분석의 편의상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용형태별로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주의 취업형태가 임금근로인 경우 전 기간동안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해마다 최소 40% 이상 일어나고 있으며, 빈곤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비중도 2000년도까지 역시 40%이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 임금근로자의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가구보다는 빈곤진입률 및 빈곤탈출률이 다소 낮으나 역시 평균적으로 30%이상의 높은 이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높은 소득변동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 20% 전후만이 진입 및 탈출을 경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 이동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빈곤으로의 진입률과 탈출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미취업자 가구의 경우 1997-1998년 사이에 26%가 빈곤에서 탈출하고 27.8%가 새롭게 빈곤에 진입한 반면, 2001-2002년 기간동안에는 이보다 약 10%p나 감소한 16.4%가 빈곤에서 탈출하고, 16.7%가 빈곤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상태가 오래될수록 점점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빈곤상태는 가구주의 취업상태가 임금근로인 경우보다는 비임금근로인 경우에, 비임금근로인 경우보다는 미취업인 경우

가 더욱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4. 일시적 빈곤과 만성빈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으로의 진입 및 탈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구들의 빈곤경험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내비치지만 만성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보다 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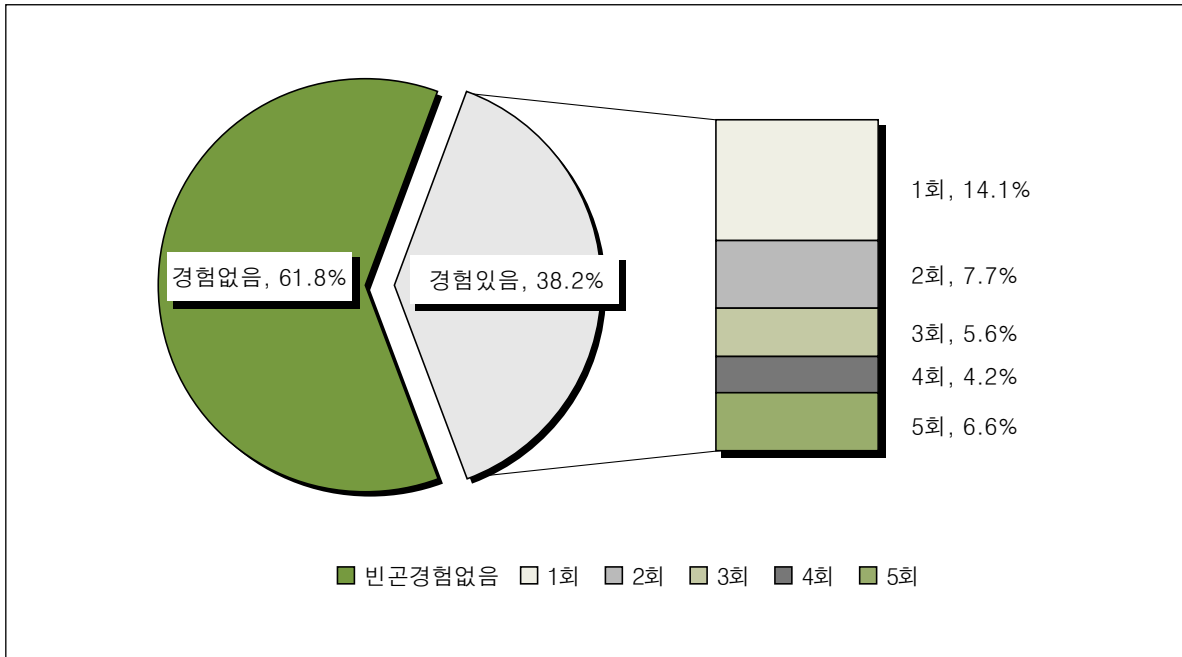
[그림 2]는 1998-2002년 기간동안 분석대상 가구들 중 빈곤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가구는 어느 정도인지, 경험했다면 몇 회나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³⁾. 우선 빈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가구는 38.2%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빈곤을 한번만 경험한 가구는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내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구들도 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림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빈곤가구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54.5%나 되는 가구가 빈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 빈곤을 1회 경험한 경우는 15.8%로 차상위계층을 제외하였을 경우와 큰 차이가 없지만, 2회 경험한 가구는 11.0%, 3회 경험한 가구는 7.6%, 4회 경험한 가구는 7.7%, 계속 빈곤상태에 있었던 가구는 12.5%로 나타나 만성빈곤가구의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의 빈곤경험 회수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취업상태 및 가족의 구성형태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표 3> 참조). 우선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경우 분

3) 1차조사 당시의 빈곤여부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1차조사 이전의 취업상태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분석상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1차 조사 당시의 빈곤경험여부는 빈곤경험횟수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2] 가구의 빈곤경험 횟수



적대상 기간동안 빈곤을 한 번 경험한 가구 중 85.9%가 남성가구주인데 반해, 계속빈곤가구인 경우에는 남성 가구주의 비중이 54.2%로 낮아진다. 그러나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1회 빈곤경험가구 중 14.1%이던 것이 만성빈곤가구에서는 45.8%로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남성인 경우에 비해 만성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1회 빈곤경험가구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 빈곤가구가 고르게 퍼져 분포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만성빈곤가구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계속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미취업자인 경우의 비중이 높으며,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 혹은 부부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경우 1회 빈곤경험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특성이 남성, 30대 이하, 임금근로자, 부부 및 미혼자녀 가구로의 편중현상이 더욱 커지는 반면, 5회 모두 빈곤을 경험한 가구에서는

여성, 60대 이상, 미취업자, 1인 및 부부단독 가구로의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회 빈곤가구들의 빈곤발생 연도를 살펴보면, 모든 년도에 고르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일시적 빈곤의 원인이 1997년의 외환위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용문제와 연관된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빈곤을 경험한 횟수가 단 한번에 그친 가구는 상당수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로 빈곤경험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계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빠져있는 가구들은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회 모두 빈곤을 경험한 177개 가구 중에서 27.1%인 48개 가구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경험 회수에 따른 특성의 차이는 이들 가구의 소득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1회 빈

〈표 3〉 빈곤경험가구의 특성

(단위 : %, 가구 수)

가구주의 특성		1회 빈곤경험가구		5회 모두 빈곤을 경험한 가구	
		차상위계층 제외	차상위계층 포함	차상위계층 제외	차상위계층 포함
가구 수(전체가구 대비 비중)		377 (14.1)	422 (15.8)	177 (6.6)	334 (12.5)
성별	남성	85.9	90.3	54.2	61.1
	여성	14.1	9.7	45.8	38.9
연령별	30대 이하	24.9	27.7	2.8	5.7
	40대	27.9	31.0	6.8	12.6
	50대	26.3	26.3	9.0	11.4
	60대 이상	20.9	14.9	81.4	70.4
취업 형태	임 금	30.5	35.5	8.5	16.5
	비 임금	35.8	36.5	21.5	25.1
	미취업자	33.7	28.0	70.1	58.4
가구 형태별	1인 가구	6.9	3.3	42.4	33.8
	부부단독	8.8	7.4	24.9	23.1
	부부 미혼자녀	57.8	66.3	10.2	17.7
	편부모 미혼자녀	8.5	7.4	7.9	9.9
	비핵가구	18.0	15.6	14.7	15.6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	-	27.1	19.8

주 : 1) 1회 빈곤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빈곤을 경험한 연도의 특성임.
 2) 5회 빈곤가구의 가구주 특성은 2002년의 가구주 특성임.

곤경험가구와 계속빈곤가구의 항목별 소득 유무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서 확연히 구분되듯이, 1회 빈곤경험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85.1%로 아주 높았으며,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27.9%에 그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계속빈곤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38.4%에 그친 반면,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중이 8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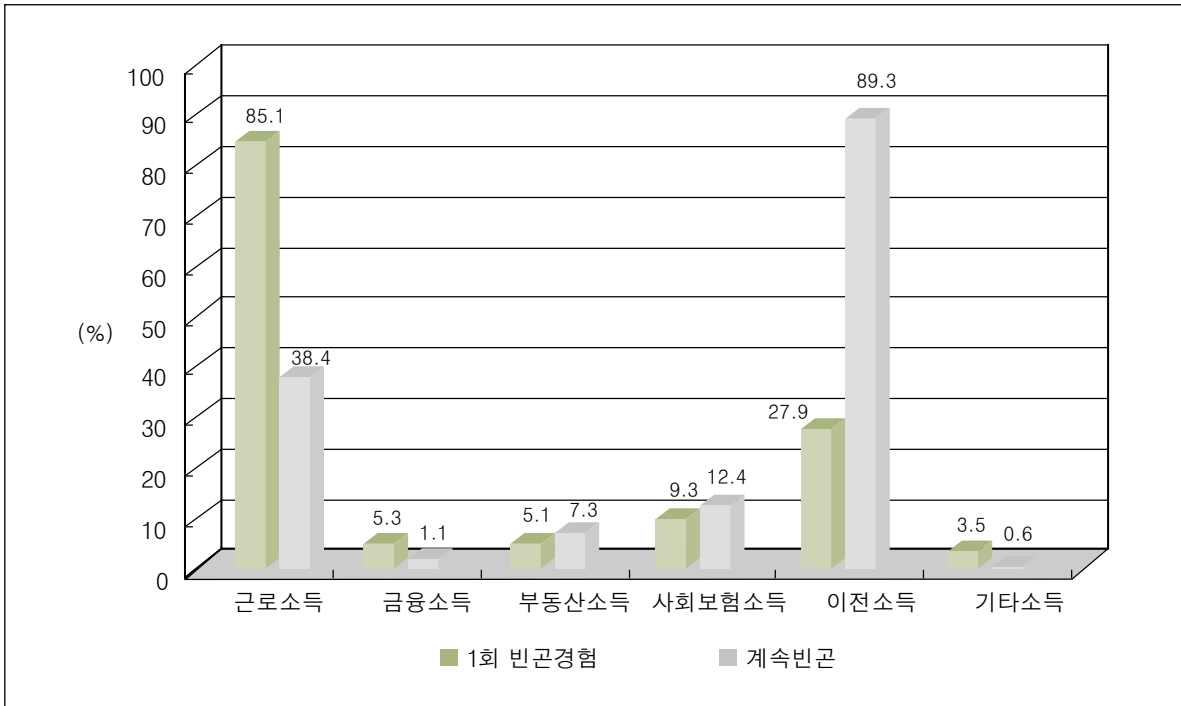
5. 결론

지금까지 한국노동패널 1-6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규모, 빈곤의 진입과 탈출, 그리고 빈곤경험회수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1998-2002년의 기간동안 절대빈곤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빈곤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

4) 가구의 소득유무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각 소득 항목의 비중을 합할 경우 100%를 넘는다.

[그림 3] 1회 빈곤경험가구와 계속빈곤가구의 소득 항목별 비교



었다. 빈곤율은 주로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라서 큰 격차를 보이며, 가구내 취업자 수가 몇 명인가 하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빈곤을 동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그 진입과 탈출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가구주가 취업자인 경우보다는 미취업자인 경우에 소득계층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 계층의 빈곤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대상 기간동안 한 번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의 비중은 3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때 가구주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빈곤 경험이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일

시적인 정부보조보다는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이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성빈곤 상태에 놓인 가구들 중에는 이전 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노인가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만성빈곤 상태에 놓인 노인가구는 앞으로도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만성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보호를 받는 가구의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만성빈곤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다 현실화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